

#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Propositions for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Design

주저자 : 최범 (Choi Bum)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전공

본 연구는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연구 전문위원회의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콜로키엄 연구비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1. 역사의 기능: 정당화와 성찰

### 2.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 2-1 역사는 해석이다
- 2-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 2-3 단순한 진보사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 2-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3.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의 기대

### 참고문헌

### (요약)

역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정당화와 성찰이다. 정당화란 역사적 궤적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성찰은 역사가 언제나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전자가 보수적이라면 후자는 개혁적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재생산하며, 또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발전을 담보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디자인의 경우에도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성찰적인 관심이 더러 나타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전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는 해석이다. 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3) 단순한 진보사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Abstract)

The function of history is divided into two: justification and reflection. Justification confers causality on the consequences of history, and thereby putting emphasis on the inevitability of present. From the perspective of reflection, on the other hand, history is what is selected from several possibilities, and in this respect, present is not necessarily inevitable. The former is conservative; the latter, reformative. History, however, takes both of the functions. History reproduces a community by preserving memories of the community through a record, and leads to the evolution of a community through reflection. Emerged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Korean design,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is witnessing a growing desire to prove its existence through history. While, it is also noteworthy that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looking at the history of Korean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reflection. I propose four propositions necessary to study of the history of Korean design. They are as follows: 1) History is interpretation; 2) The history of the institution should be overcome; 3) A simplifying progressive view of history should be restrained; 4) Foundation for study should be established.

### (Keywords)

Justification, Reflexion, Historical View

## 1. 역사의 기능: 정당화와 성찰

최근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몇 가지 제도적 기준(교육, 정책, 산업 등)으로 보면 한국 디자인도 어느덧 40-50년의 연륜을 가지는데, 이 분야의 양적, 질적 성장 정도를 생각하면 역사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느 분야가 자신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 대한 접근과 연구마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는 것이 생각보다는 복잡미묘한 물건이며 매우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자인 분야가 자신의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것을 현재적 실천을 넘어서 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 디자인의 발전과정에서 볼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디자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현재적인 실천과 이해관계의 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디자인 역시 다른 모든 인간 활동과 마찬가지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 실천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자각이지만, 한국 디자인계의 관성으로 보자면 매우 소중한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 연구가 반드시 객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역사 연구의 방법에서든 결과에서든 마찬가지이다. 어쩌면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되 일정한 관점에서 재구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는 달리 사실도 허구도 아닌, 사실과 허구의 중간쯤에 자리하는 것이지도 모른다.

일부 포스트 모더니스트 역사학자들은 역사와 문학을 동일시한다.<sup>1)</sup> 그것은 문학이 비록 전제로서는 허구일지라도 서술의 기본적인 재료는 대체로 현실의 것을 취하기 마련인 것처럼, 역사도 기본적인 재료는 역사적 사실, 즉 사실(史實)이지만 그것을 해석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문학과 마찬가지로 가공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역사가 과학인가 아니면 문학과 같은 허구인가 하는 문제는 역사학의 본질적인 쟁점에 속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간단히 논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과학을 지향하는 문학이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본다.

그런데 역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역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즉 정당화(justification)와 성찰(reflexion)이다. 정당화란 역사적 재적에 인과성을 부여함으로써 현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에 반해 성찰은 역사란 언제나 여러가지 가능성 중에서 선택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현재가 반드시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정당화가 주로 역사를 믿도

록 만든다면 성찰은 역사를 의심하도록 한다. 대체로 전자가 보수적이라면 후자는 개혁적이다.

그러나 역사에는 이 두 가지 기능이 모두 필요하다. 역사는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을 보존함으로써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하며, 또 성찰을 통해 공동체의 새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정당화로서의 역사는 보존적 욕구를 반영하며 성찰로서의 역사는 도전적 욕망을 자극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의 이 두 가지 기능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사실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물음을 던지는 것은 매우 실천적인 함의를 갖는다. 그것은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향후 한국 디자인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란 현재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 않는, 일정한 거리를 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역사에 대한 소박한 생각이나 겸손함과는 달리 매우 실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현재에 대한 가치 판단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좀더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역사란 과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과거를 근거로 한 현재의 판단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문제를 다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맞추어 보자.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경우에도 정당화와 성찰이라는 역사의 두 가지 기능이 모두 작용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먼저 감지되는 것은 정당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등장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디자인계지만 역사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은 점차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학 교수 출신인 디자이너 1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개인 작품집을 펴내거나 디자인 단체들이 일정한 연륜을 쌓으면서 회고적인 자료집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일단 그러한 기능이 자연스럽게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래 정당화 기능이란 현재의 중심을 이루는 주류에 의해서 수행되기 마련이며, 역사 연구의 일차적인 계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성찰적 기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성찰적 기능이란 역사의 보수적 기능을 넘어서 보다 혁신적인 해석을 지향하는 만큼 한결 비교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성찰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연구와 기술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 혹여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앞서서 경우 그저 의식을 환기시키거나 당위적인 주장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up>2)</sup>

그러나 직접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역사의 성찰적 기능을 형성해가는 접근들이 더러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는 한국 디자인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함께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정당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질문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sup>3)</sup>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성찰적 접근은 한국 디자인

1) 역사학자 헤이든 화이트는 역사 서술이 일종의 '언어적 인공물(verbal artifacts)'이며, 그것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체로 구성된다는 의미에서 '허구(fiction)'라고 본다.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pp.229-240.을 참조할 것.

2) 최 범이 쓴 다음 글이 바로 그러한 수준에 머무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과 역사*, 월간 디자인, 1995. 8.

3) 이러한 문제의식을 함유한 것으로 다음의 몇몇 글을 들 수 있다.

을 보는 또다른 관점을 제시할 뿐 아니라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서도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당화 기능이든 성찰적 기능이든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이제야 출발점에 서있다. 돌아보면 20세기 후반 이후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변화는 디자인 분야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기존의 제도와 영역이 흔들려왔다. 디자인은 나름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왔고 어쩌면 그러한 변화에 앞장 서왔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변화들이 자신을 확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욱 추동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 속에서 디자인은 자신의 궤적을 확인하고 새로운 길을 찾고자 한다.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 역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요구되는 실천적 과제도 그로부터 그리 멀리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2.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전제

앞서의 관점에 근거하여 향후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를 몇 가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존 연구에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한국의 디자인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식 내지는 합의사항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열거해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조금이라도 더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

### 2-1. 역사는 해석이다

역사 연구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역사적 사실도 그 자체로는 역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역사학을 과학으로 정초하고자 한 독일의 레오폴트 폰 랑케는 '역사 그 자체로 하여금 말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역사 자체가 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사는 직접 말할 수 없으며 언제나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 의미화될 수밖에 없다. 역사는 최종적으로 사실의 체계가 아니라 의미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 연구의 재료(史實, 史料)와 그 결과물(기술된 역사)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디자인계에서는 아직 이처럼 기본적인 사실이 잘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역사가 해석이라는 적극적 행위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사료의 제시를 곧 역사 연구로 착각하는 경향이 만연하다. 10여년 전부터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면서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디자인과 관련된 사료가 수집되고 지면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흔히 '한국 디자인 100년'식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그러한데, 사료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의의는 매우 크지만 마치 그것 자체가 역사 연구인 것처럼 간주된다면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sup>4)</sup> 역사 연구에서 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다시 말하건대 사료의 제시와 역사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 역사란 역사적 사실(사료)을 대상으로 일정한 관점(사관)에 따라 조직, 재구성한 이야기(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가 해석적 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물이해는 다른 대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연표가 좋은 예이다. 한국 디자인계는 연표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다. 흔히 디자인 단체나 잡지에서 창립 100주년을 맞으면 으레 연표를 만들곤 한다. 아마도 체계적으로 기술된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 연표를 손쉬운 대체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비록 간략한 형식일지라도 연표도 엄연히 역사 기술의 일종이며 일정한 관점에 따라 배열될 필요가 있다. 연표란 비유하자면 점(點)으로 표현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표상의 점들은 결코 무심한 기하학적 위치일 수가 없다. 점과 점 사이에는 역사적 사건들 간의 연관관계와 긴장이 발생하면서 하나의 전체상(全體像)을 형성하게 마련이다. 아마도 이러한 것이 연표가 보여주는 역사성일 것이다. 역사가 선택의 문제라는 것을 연표만큼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예를 들어 1894년의 갑오경장은 일반사 못지 않게 디자인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다. 그것은 제도적 근대화의 출발점일 뿐 아니라, 정치적 개혁에 이어지는 단발령과 복식 개혁으로 인해 향후 한국 시각문화의 커다란 전환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사 항목에 갑오경장이 나온다면 적어도 디자인사 항목에서는 단발령과 복식개혁이 마주하고 자리 잡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1970년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사적 사건은 디자인포장센터의 설립일 수도 있지만, 한국 디자인에 미친 영향으로 볼 때 어쩌면 새마을운동의 시작이 더 앞자리를 차지해야 할지도 모른다. 연표의 효용성을 나름대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를 단순히 기하학적인 방식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디자인계에서 만들어온 연표들을 보면 주로 외국의 틀을 그대로 빌려오거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로부터 가져와 적당히 짜집기한 것일 뿐, 한국 디자인사의 독자적인 시각을 갖추지 못한 것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 디자인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디자인사의 경우에도 그것을 보는 우리 나름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유럽 디자인사라 하더라도 유럽인들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연표 역시도 나름대로의 역사 연구 결과 가능한 것이지, 진공의 상태에서 무중력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객관

이터: 김상규)과 같은 전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지난 몇 년간 유행했던 생활문화사적 접근을 취한 이 전시 역시 사료의 나열을 넘어서 어떤 디자인사적 구성물(전시 내러티브나 담론)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는 물론 디자인사의 유력한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일상사나 문화사적 접근을 적용할 경우 문화사 서술과 디자인사 서술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간단하지 않은 이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뚜렷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아무튼 주제적 차원에서든 방법론 차원에서든 디자인사 고유의 내러티브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특수사로서 디자인사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일상문화사를 디자인사로 재구성해내는 논리와 그들 간의 이론적 인터페이스에 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최 범, '한국적 디자인' 또는 복고주의 비판, 월간 디자인, 1995. 2.; 한국 사회와 디자인, 'de-sign korea'전 도록,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2001. 12.; 김종균, 한국 현대 디자인의 문화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4) 이러한 문제는 얼마전에 열린 '신화 없는 탄생, 한국 디자인 1910-60'(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2004. 9. 24.-10. 17. 큐레

적인 사실이란 없으며 모든 것은 해석된 사실일 뿐이다. 개략적인 연표가 결코 역사 연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 또한 역사 연구의 노력이 낳은 산물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 디자인사 연구는 단순히 사료를 제시하거나 연표를 나열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디자인사 연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역사가 일종의 해석 행위라는 자명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2-2. 제도의 역사를 넘어서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디자인의 역사는 디자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디자인을 좁은 제도(교육, 전문직, 생산 등)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디자인의 역사는 제도의 역사는 물론이고 디자인의 사회사와 문화사를 포괄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사 연구들은 대체로 디자인 제도의 역사에 집중해왔다고 할 수 있다.<sup>5)</sup>

물론 제도의 역사도 디자인사의 중요한 부분이며, 거기에도 생각해야 할 문제는 많다. 어떤 영역이든지 그 영역의 총체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제도일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제도는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대신하는 부분, 즉 환유(換喻)적인 가치를 가진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도사라 하더라도 피상적인 접근보다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거나 또는 거꾸로 규정하는 다양한 관계를 파고 들어가는 분석적, 징후적인 독해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사만으로는 역사를 충분히 재현할 수 없다. 그것은 곧잘 '차잔 속의 사실'을 '차집의 현실'로 읽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자인은 매우 폭넓은 사회문화적 과정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디자인사 연구에도 이러한 시각이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동안 근대 또는 탈근대 역사학에서 발전시켜온 사회사, 일상사, 문화사, 지성사 등 다양한 역사 연구의 방법과 패러다임을 디자인사에 적용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디자인사가 디자인 제도사로 수축되고 급기야 메마른 공식사(official history)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 2-3. 단순한 진보사관은 지양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역사를 제도 중심으로 보는 것은 곧 사관(史觀)의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과연 역사가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진보사관(progressive history)<sup>6)</sup>은 이 문제를 완전히 도외시한다. 어떤 제도가 가장 경직되고 모순된 상태를 가리켜 흔히 관료화라고 하듯이, 진보사관은 역사의 관료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진보사관은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발전한다고 보는 사관이다. 그러자면 자연히 목적을 설정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목적사관(teleological history)이라고도 부르며, 역사의 진행을 대체로 직선적으로 보기 때문에 선형사관(linear history)이라고도 부른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많지 않은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기술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월간 디자인에 한국디자인 100년사를 연재한 박암종은 한국 디자인사의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다.<sup>7)</sup>

.초창기(개화기-1945)

.혼란기(1946-65)

.육성기(1966-75)

.성장기(1976-87)

.도약기(1988- )

한편 김민수는 한국 현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sup>8)</sup>

.전조기(1910-45)

.여명기(1945-59)

.육성기(1960-69)

.성장기(1970-87)

.도약기(1988- )

박암종과 김민수의 한국 디자인사 시기 구분은 매우 유사한데, 모두 진보의 관점에서 디자인사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에서 시기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바로 역사를 보는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이들의 모델에서 개화, 식민지, 해방, 전쟁과 같은 일반사적 기준과 디자인 교육, 진흥정책, 세계화 등 한국 디자인계 성장사의 혼잡이 시기 구분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모델이, 한국 디자인계에서는 다른 모델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각 시기의 설정 자체가 타당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것은 논외로 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진보사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은 역사가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결국 어느 한 시기란 다음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변화 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사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사실로 바뀔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변화에 인과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하나의 사실로부터 다른 사실로의 변화를 발전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보는 것일까.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는 것은 과연 역사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간단하지 않은 역사 철학적인 문제들이 개재되어 있다.

물론 역사에서 발전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역사

5) 제도적 접근이든 다른 방식의 접근이든 간에 한국 디자인사에 대한 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지만, 그나마도 제도 중심의 접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정시학의 다음 글도 생산과 진흥 제도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30년, KSID, Industrial Design 1987-92, 디자인하우스, 1993.

6) 사관은 영어로 historical view라고 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편의상 history로 표기한다.

7) 박암종, 한국 디자인사 100년을 시작하며, 월간 디자인, 1995. 8. p.117.

8) 김민수, 문화적 정체성을 향하여, 월간 디자인 네트, 1997. 11. p.95.

는 많은 경우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단순한 수준에서 복잡한 수준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조차도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그것을 발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복잡한 것이 반드시 단순한 것보다 발전이라고 볼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가치의 문제는 결국 세계관의 문제이며 사관의 문제로 직결된다.

말했다시피 진보사관은 역사를 목적론적으로 본다. 역사가 마치 최고, 완성, 통일 등과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반드시 역사가 어떤 섭리에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한 인식은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신학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다보니 목적론적인 역사관은 역사를 다른 것과의 유비를 통해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발아-성장처럼 식물의 성장에서 가져온 유기체적 비유나, 미국의 경제학자 윌트 로스도가 경제 발전 단계설에서 사용한 것처럼 도약(take-off)과 같은 항공술적인 비유를 사용하기도 한다. 과연 역사가 식물의 성장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비행기처럼 날아오르는 것인지 정말 생각해볼 문제이다.

물론 역사의 발전을 생성-소멸과 같이 유기체의 삶에 비유하는 것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오래된 사고방식이기는 하다. 그러나 개체의 삶이 아닌, 역사라는 집단적 삶의 과정에 이러한 비유를 적용하는 것은 결코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해 궁금한 점은 이미 성장과 도약과 토착화가 이루어진 한국 디자인사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디자인사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천년 왕국일까, 아니면 프랑스의 후쿠야마 같은 인물이 주장하듯이 '역사의 종말'일까. 그도 아니면 IMF를 계기로 다시 쇠퇴했다고 해야 할 것인가.

결국 진보사관은 역사를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는 점에서 현재의 체제를 긍정하는 보수적 기능을 하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진보사관이 제도 중심, 양적 성장 중심의 접근을 보여주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아무튼 이러한 진보사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 디자인사를 보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4. 연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은 사료와 연구자이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사료의 수집, 분류, 보존 작업이 있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의식을 갖고 연구할 연구자가 있어야 한다. 전자는 주로 물질적인 기반에 속하고 후자는 제도적, 교육적 기반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연결시키고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이 갖춰지면 더욱 좋을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물질적 기반의 경우 각종 디자인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한 박물관과 아카이브를 설립하여야 한다. 풍부한 사료가 없다면 역사 연구는 상상력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를 배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역사 연구자

는 인문학적인 소양과 함께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투철한 역사의식에 바탕한 인내심과 열정이 요구된다. 당장은 기존의 디자인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관심을 가진 자발적 연구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에 의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양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한국 디자인 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대학원 과정 정도에서는 디자인사 전공 개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데 디자인계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마 한국 디자인계에 쏟아지는 연간 예산의 백분의 일만 이런 부분에 사용된다 해도 그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몇몇 개별적인 연구자들의 관심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며 한국 디자인을 미래를 위한 역사적 토대도 마련되기 힘들 것이다.

### 3.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의 기대

모처럼 일기 시작한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제대로 추동되고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디자인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디자인계의 보존적 욕망에 압도되어 정당화 기능에만 치우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역사의 정당화 기능에 못지 않게 성찰의 기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찰을 통해서 비로소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디자인사 연구는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궤적을 돌아보는 가운데 디자인 공동체의 재생산과 함께 디자인 실천의 변화를 추동하는 힘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모름지기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정당화와 성찰이라는 역사의 야누스적인 두 얼굴 중 어느 면을 향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디자인의 방향도 결정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 범, 디자인과 역사의식, 월간 디자인, 1995. 8.
- 최 범, '한국적 디자인' 또는 복고주의 비판, 월간 디자인, 1995. 2.
- 최 범, 한국 사회와 디자인: 근대화의 일그러진 풍경,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전 도록,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2001. 12.
- 최 범, 디자인의 발견: 일상문화를 위한 전략, '디자인 발견: 일상 속의 디자인 문화' 전 도록, 예술의 전당 디자인 미술관, 1999. 11.
- 박암종, 한국 디자인 100년사를 시작하며, 월간 디자인, 1995. 8.
- 김민수, 문화적 정체성을 향하여, 월간 디자인 네트, 1997. 11.
- 김종균, 한국 현대 디자인의 문화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4.
- 정시화,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30년, KSID, Industrial Design 1987-92, 디자인하우스, 1993.